인공지능 분야를 내가 진학할 학과로 결정하기 전까지,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나마 학생 시절의 내 기억에 인상깊게 남았던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건이나 정보라고 한다면, 2016년 3월에 이세돌 9단과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하루에 한 차례, 7일간 총 5번 바둑 대국을 벌였던 통칭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정도가 될 것 같다.

그간 알파고의 행적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알파고는 스스로와의 대국을 통한 학습이 가능했으며, 다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들과의 대국에서 494승 1패라는 전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세돌 9단과 대국을 펼치기 전, 2015년에 중국의 바둑 기사인 판 후이 2단과도 바둑 대국을 벌였는데, 결과는 5:0, 판 후이의 참패였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마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듯해 보였다.

하지만 필자와 지인들은 이세돌의 승리를 예상했었다. 전성기는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체스 인공지능이었던 딥블루는 첫 시합에서 3승 2무 1패, 두 번째 시합에서는 2승 3무 1패로 무승부나 패배의 전적이 많았던 반면,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을 상대로도 4승 1패라는 전적을 기록했다. 이 대국이 많이 인상깊게 기억에 남았었는지, 이때부터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을 조금씩 인식하게 됐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도 인공지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었던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이 존재하는지, 어떠한 양상으로 활용되는지 또한 잘 몰랐으니까. 인터넷 게시글이나 영상을 시청하면 그에 관련된 게시글들과 영상을 나열해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삼성 갤럭시의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 애플 아이폰의 인공지능 응용 비서 Siri 등등. 꽤나 많은 것들이 찾아보니 의외로 인공지능이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인공지능의 종류가 궁금해져 인터넷에 검색을 조금 해봤다. KT의 ‘기가지니’나 카카오의 ‘카카오미니’ 같은 AI기능이 탑재된 스피커, 개발이 진행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I 마켓인 ‘아마존고’, IBK기업은행에서 출시한 AI음성봇 상담서비스인 ‘IBK바로’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대화형 인공지능인 ‘이루다’와 ‘ChatGPT’, 생성형(그림) 인공지능인 AI dungeon과 NovelAI까지. 내가 직접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 커뮤니티의 게시글들을 둘러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와 약간은 어색하지만 사람이 그린 듯한 퀄리티의 그림들을 보면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가 머지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수많은 인공지능들을 조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용하던 것도 인공지능이었음을 깨닫는 데에서 오는 신기함부터, 내가 후에 저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걱정까지. 새삼 인공지능의 대단함과 이를 만들어낸 개발자들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도 그런 개발자들을 목표로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다.